칩스앤미디어(094360)

비디오 코덱을 넘어 AI-ISP로, 칩스앤미디어의 신사업 진화

ARIS
더 많은 보고서는 텔레그램 채널로
@ARIS1031

Report Summary

- 2003년 설립. 2015년 코스닥 상장
-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IP 전문기업
- 로열티 매출 비중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성 증가 기대
- AI영상처리 특화 NPU IP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확장
- 2026년 매출액 320억원, 영업이익 90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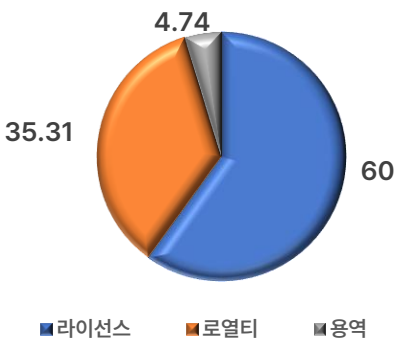
Info

기업탐방 일자	2025.12.02
발간 일자	2026.03.18
투자의견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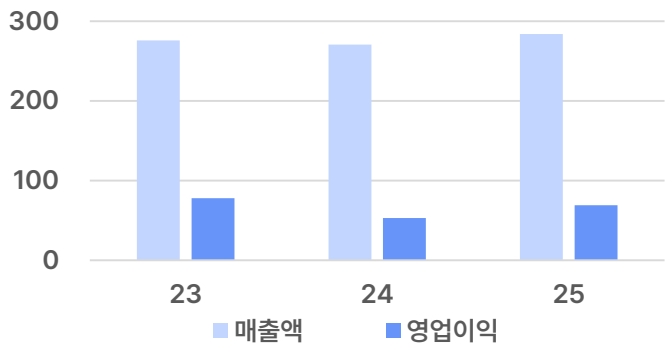
Company Data

시가총액	3,554억원
상장주식수	21,334,174주
액면가	500원
외국인 소진율	0.84%

매출 비중(연결)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단위 : 억원

Analyst

이재모
charisma38@naver.com
전민경
alsrudkh26@naver.com

기업 탐방 사진



ARIS
INDEPENDENT
Analysis • Research
Investment • Stock

기업 개요

- 설립 상장 : 2003년 3월 06일 설립 / 2015년 8월 5일 코스닥 상장
- 주요 사업 :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IP) 개발 및 판매
- 매출 비중 : 25년 기준 라이선스 60%, 로열티 35.31%, 용역 4.74%
- 주요 주주 : 한투반도체투자 주식회사 등 특수관계인 34.24%, 텔레칩스 7.25%, 자사주 1.2%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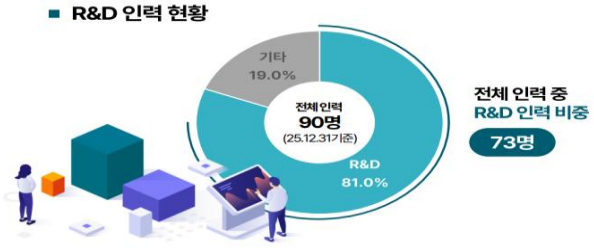
기업 개요

20년+ 업력의 글로벌 비디오 IP 기술 선도 기업

■ 기업 개요

회사명	(주)칩스앤미디어
대표이사	김상현
설립일	2003. 03. 06
자본금	108억 원
임직원수	90명(2025.12.31 기준)
주요사업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09 7층, 8층
홈페이지	www.chipsnmedia.com

■ R&D 인력 현황



■ 대표이사 소개



이 호 부사장	CFO	· 서울대 경제학과 · 삼성물산(주) 재경팀 · 칩스앤미디어(2004~현재)
강 원 모 상무	CHRO	· 중앙대 경영학과 석사 · BOE 하이디스 · 칩스앤미디어(2007~현재)
권 중 현 이사	CTO	·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 GCT Semiconductor · 칩스앤미디어(2003~현재)
최 주 환 이사	CSO	· 서울대 중어중문학 학사 · 오픈엣지테크놀로지(2018~2024) · 칩스앤미디어(2005~2017, 2025~현재)

자료 : 칩스앤미디어

성장 연혁

2003년 ~ 2006년 : 회사 설립 및 반도체 IP 제품화

창 립 기

- '03.03 회사 설립
- '03.05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04.09 국내 첫 비디오 IP 라이선스
- '04.10 벤처캐피탈 투자 50억원 유치
- '05.10 해외 첫 비디오 IP 라이선스
- '06.07 최초 로열티 수익 발생

2007년 ~ 2014년 : 고해상도 비디오 IP 개발을 통한 시장선도

성 장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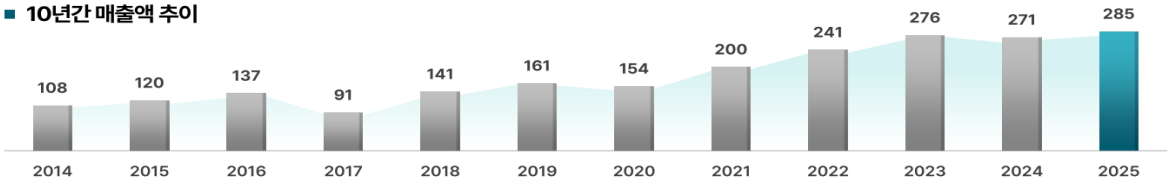
- '07.12 FULL HD급 멀티 표준 비디오 디코더 IP 출시
- '08.04 칩스앤미디어와 씨앤엠마이크로 인적 분할
- '08.05 대표이사 김상현 취임
- '09.04 최대주주 변경 (텔레칩스)
- '13.10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상장
- '14.04 UHD급 비디오 코덱 IP 출시

2015 ~ 현재 : 비디오 IP 시장의 Leader

도 약 기

- '15.08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이전 상장
- '17.01 ISP IP 출시
- '18.05 Computer Vision IP 출시
- '19.02 8K UHD급 비디오 코덱 IP 출시
- '19.10 세계 최초 커머셜 AV1 IP 출시
- '20.04 딥러닝 기반 Super Resolution IP 출시
- '21.06 Multi-standard 기반의 AV1 IP 출시
- '21.10 기술적용 반도체 칩 10억 개 돌파
- '22.07 최대주주 변경(한국투자파트너스)
- '23.09 NPU IP 출시
- '24.09 중국 JV 설립

■ 10년간 매출액 추이



자료 : 칩스앤미디어

주요 사업 개요

➢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IP 전문기업

①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IP)을 개발 및 판매하는 설계 자산(Silicon Intellectual Property)전문기업
반도체 IP는 반도체 칩 내부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 블록(Design Block)을 의미

② SoC(System-on-Chip) 설계 시 영상 처리, AI 연산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모듈 형태로 제공하며, 반도체 기업은 해당 IP를 활용하여 칩 설계 기간과 개발 비용을 절감

③ 동사는 반도체 칩에 적용되는 영상처리(Video Codec) 중심의 반도체 IP 설계 기업으로 사업 모델은 크게 1)라이선스 매출과 2)로열티 매출로 구성되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장기 반복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1) 라이선스 매출: 반도체 기업이 칩 설계 과정에서 칩스앤미디어 IP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초기 사용료
2) 로열티 매출: 해당 IP가 적용된 반도체 칩이 실제로 양산되어 판매량에 따라 비례해서 발생하는 수익

④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반도체 및 팹리스 기업으로 NXP, 퀄컴, 텔레칩스 등 약 160 개 이상
지역별로는 중국 39%, 미국 36%, 일본 12%, 한국 7%, 대만 2% 등 다양한 지역에 고객사 확보되어 있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모바일,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 및 적용 분야 확대 중

⑤ 반도체 IP시장은 높은 기술 장벽과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기업 제한적인 편이며, 中 VeriSilicon, 佛 Allegro DVT 등이 주요 경쟁회사

⑥ 기존 비디오 코덱 IP 사업을 기반으로 영상처리 특화 NPU(Neural Processing Unit) 및 AI-ISP(Image Signal Processor) 기술을 신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NPU는 2024년 첫 라이선스 매출을 기록했고, AI-ISP는 미래차, 로봇,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등 엣지 AI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프로모션 진행 중

주요 기술



자료 : 칩스앤미디어

투자포인트

➢ 로열티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증가

① 반도체 IP 업계의 수익 구조 특성상 초기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통상 2~3년 뒤에 고객사 칩 개발 및 판매에 다른 로열티 매출이 발생되는데, 이는 곧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연결

② 동사는 20년 이상의 기술 축적을 통해 비디오 IP가 적용된 칩 수가 누적으로 20억 3,000만개에 달함 로열티 매출은 고객사 칩 출하량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우수한 매출 구조, 25년 OPM 24.5% 기록

③ 23 ~ 25년 3년간 기존+신규 고객 중심으로 누적된 라이선스 매출액이 26년에는 로열티 매출액 성장을 견인 신규 고객군은 AI, 전장등 장기적 칩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동사의 로열티 매출의 질적 개선 효과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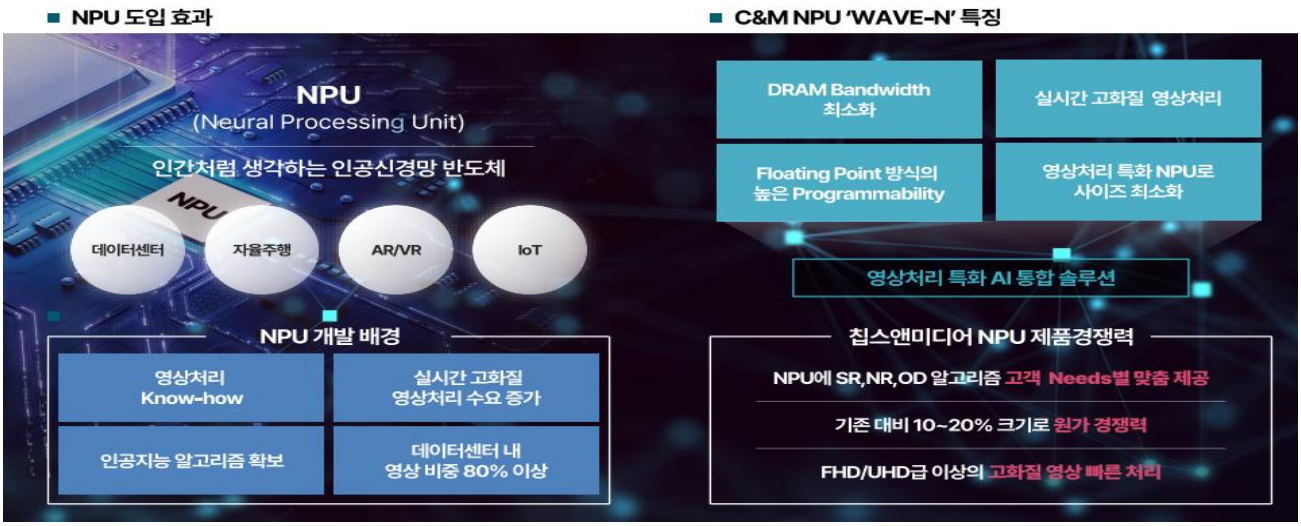
➢ AI 영상처리 NPU IP 기반 신규 성장 동력 확보

① 동사는 기존 비디오 코덱 IP 중심의 사업에서 AI영상처리 특화 NPU IP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확장 23년 SR(Super Resolution: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확대 및 복원하는 기술), NR(Noise Reduction: 영상 및 오디오 신호에서 원치 않는 잡음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 OD(Object Detection:이미지에서 객체를 분류하고 위치를 동시에 예측하는 컴퓨터 비전 과제) 기능을 구동할 수 있는 자체 NPU 'WAVE-N'을 개발 24년 하반기 AI SoC 고객사를 통해 첫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하면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

② 해당 NPU는 Full – HD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 처리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고객사의 AI 칩 연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반도체 제조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높음

③ CES 2026에서는 동사의 NPU IP 'WAVE-N'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AI기업 Visionary.ai와 협력해서 세계 최초 AI-ISP 솔루션을 공개했는데, 기존 하드웨어 중심 ISP 구조를 AI소프트웨어 기반 영상처리 구조로 전환해 실시간 화질 개선과 기능 업데이트가 가능한 차세대 영상처리 기술을 선보임

칩스앤미디어 NPU IP 'WAVE-N'



자료 : 칩스앤미디어

실적 전망

① 25년 매출액 284억원, 영업이익 69억원, 당기순이익 59억원 기록(26.2.3일 공시)

전년대비 매출액 5%, 영업이익 32%증가

북미 ,일본 등에서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신규로 확보하면서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로열티 매출액의 증가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 나타나면서 OPM 상승

② 2026년 매출액 320억원 영업이익90억원 추정

북미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한 영업전략으로 신규 고객군 확보로 매출액 증가

로열티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OPM은 지속 상승세 유지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기준)

	2023	2024	2025
매출액	276	271	284
영업이익	78	53	69
당기순이익	-267	100	59

자료 : 독립리서치 ARIS

단위 : 억원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요인

➢ 신사업 성장성, 신규 IP의 매출 증가

기존 사업은 캐쉬카우 역할을 하면서 신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라이선스 매출을 발생시킨 부분도 있고, 신규 라이선스 매출 이후에 로열티 매출 증가되는 부분이 동사 기업가치 상승의 중요 핵심 체크포인트라 판단된다.

Q & A

Q	AI 영상처리 IP(WAVE-N, AI-ISP)의 실제 매출화 시점은 언제인가?
A	AI 영상처리 IP인 WAVE-N은 2024년 중국 AI SoC 향 고객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초기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부터 AI 알고리즘 개발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협력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을 추진중입니다. 협력사의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당사의 NPU 플랫폼에 적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동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실리콘 검증을 마친 WAVE-N IP와 고성능 AI 네트워크의 통합 고객이 즉시 활용 가능한 검증된 이미징 솔루션 제공하여 이미징 비전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올해 글로벌 대형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라이선스를 예상하고 있으며, 라이선스로부터 약 2~3년 후 로열티까지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향후 2~3년 매출 성장의 핵심 드라이버가 될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인가?
A	향후 2~3년 동안 칩스앤미디어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차를 포함한 Physical AI, Edge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영상 기반 AI 연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주요 고객사 SoC 업체와 계약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A	계약 구조는 조기 라이선스 계약과 이후 칩 출하량에 연동된 로열티 수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사와 IP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을 먼저 수취하고, 이후 해당 IP가 탑재된 SoC가 양산, 판매될 경우 칩 출하량에 따라 로열티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Q	AI 영상처리 IP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점은 무엇인가?
A	AI 영상처리 NPU IP인 WAVE-N은 범용 AI 연산에 초점을 둔 일반적인 NPU와 달리 영상 처리에 특화된 AI 아키텍처를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 노이즈 제거, 초해상도 ,객체 인식 등 영상 중심의 AI 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경영 전략이나 사업 방향성에 변화가 있는가?
A	22년도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당사는 22~25년까지 매출액이 18%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 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아리스(ARIS) 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